

축구의 개방성이 전세계인을 매혹시켰다

인간은 왜 축구에 열광하는가

김종엽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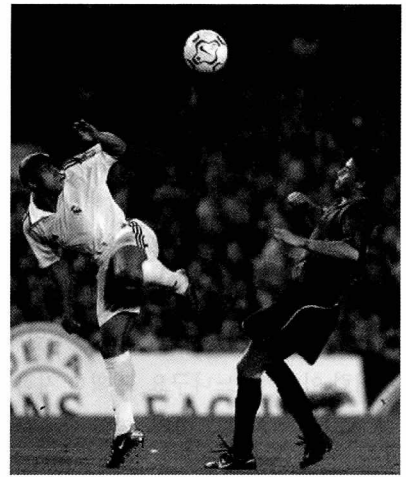
축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단순히 인기만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술한 스포츠 가운데 하나일 뿐인 축구가 그토록 인기 있고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 자체는 매우 인간학적인 것이며, 사회학자로서는 회피하고 싶은 질문형태다. 어떤 사회적 사실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심성과 자연적 연계를 맺고 있다는 식의 설명이야말로 사회학자가 극력 피하고 싶은 설명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구를 둘러싼 현상을 앞에 두면, 다분히 그런 설명의 유혹을 느낀다. 그렇게 되는 데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앞세우는 사회학적 설명이 축구 앞에서 쉽게, 예컨대 좌절하는 것도 작용한다.

발재간 통해 잃어버린 육체성 회복

대개의 대표적 스포츠 가운데 많은 것이 그렇듯 축구 또한 영국에서 발명돼 전세계에 유포된 것이다. 이렇게 근대 스포츠에서 영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헤게모니 국가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거의 세계의 1/3이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영국에서 형성된 스포츠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한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축구와 관련해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이 드러난다. 우선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은 누가 뭐래도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과 남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가 가장 인기 있고 경기력도 최상인 두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이 아니다. 역으로 영국과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유대를 맺은 미국에서 축구는 최근까지는 전혀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러나 축구의 전파가 영국의 세계 지배와 연동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사회학적 설명의 가능성이 모두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축구가 그토록 인간을 열광시키는 이유를 일차적으로 축구 자체의 매력으로부터 찾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해준



축구는 인간학적인 요인부터 사회문화적 요인의 걸쳐 무세종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구라는 경기의 매혹적인 힘인가? 우선 그것이 바로 하는 경기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도구를 제작하고 쓰는 존재로 정의한다. 인간의 도구 사용의 핵심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이 마주하는 구조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손의 능력함에 있다. 그래서 술한 스포츠들이 손재주에 의존한다. 하지만 발재간을 핵심으로 삼는 것은 축구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축구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잊었던 자기 육체 전체를 회복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축구의 내적 특징은 개방성과 보편성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사회적 설명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그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설명일 것이다. 조금 더 침착하게 사회학적이지만 한 설명과 인간학적인 설명의 중간 지대에서 축구의 매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착목하면 축구의 인기를 설명하는 네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축구 경기규칙의 단순함이다. 농구나 배구의 경우에는 축구만큼이나 용구는 간편하지만 매우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축구는 경기를 관전하는 것만으로도 직관적으로 경기 규칙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의 규칙이란 오프사이드 정도뿐이다. 이에 비해 매우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야구나 배구 그리고 농구는 축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둘째, 축구는 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용품이 매우 간단하다. 그라운드와 골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저 필요한 것이라고는 축구공 하나뿐이다. 이에 비해 야구는 글러브, 배트 등 많은 용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용구의 복잡함과 그것에 드는 비용은 대중적인 스포츠에서 먼 특징들이고, 신체 테크닉의 차원에서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비교적 인기 있는 스포츠들의 범주를 넘어서면 축구와의 차이는 더 커진다. 예컨대 골프를 생각해 보라. 그것은 매우 비싼 여러 개의 용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축구를 할 때 요구되는 신체 테크닉도 매우 단순하다. 축구는 야구처럼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농구

처럼 점프를 해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테니스처럼 자세를 익히기 위한 지루한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달리며 공을 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연습 없이 모든 사람이 즉각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축구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체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농구나 배구처럼 키가 크면 매우 유리한 그런 경기가 아니다. 호마리우의 경우에서 보듯 세계적인 축구 선수 가운데 운동선수로서는 키가 작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농구처럼 그것을 잘하기 유리한 조건이 인종적으로 이미 다른 그런 경기가 아니다.

이상 네 요인은 모두 축구라는 경기의 내적 자질이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축구는 규칙의 수준에서 인지적으로 개방적이며, 비용의 수준에서 계급적으로 개방적이며, 신체의 수준에서도 매우 개방적이며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 전세계 인종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 개방성으로 인해 축구는 세계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보편성이 있다.

축구는 언어장벽 없는 강력한 문화콘텐츠

이런 축구의 내적 자질, 탁월한 개방성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보편성은 이제 좀더 사회학적인 변수에 매개돼 폭발적인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축구가 세계적으로 전파돼가던 시기는 민족주의 및 민족 국가의 발흥기와 일치한다. 축구는 그 보편성으로 인해 이런 민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다른 민족국가들에게 각인하는 탁월한 수단이 됐던 동시에 민족국가들의 경쟁을 투사할 수 있는 매체가

됐으며, 그만큼 강력한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늘날 에초차 축구는, UN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민족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국제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이번 월드컵 지역예선전에 참여해 말레이시아와 홍콩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팔레스타인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매스 미디어 또한 축구의 세계적인 인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대 스포츠를 세계적인 대중적 오락 산업으로 만드는 데 매스 미디어가 매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빛은 스포츠가 매스 미디어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스 미디어 또한 보편성 있는 콘텐츠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포츠는 매우 적합한 콘텐츠였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즐기는 데는 거의 모든 문화적 콘텐츠에 개재하는 언어적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스포츠 가운데서도 축구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콘텐츠다. 피아노를 연주해본 사람이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듯 스포츠 또한 그것을 직접 해본 사람이 해당 스포츠의 팬이 되기 마련이다. 축구의 개방성으로 인해 전세계 어린이들은 축구를 하며 자라고, 그로 인해 열렬한 축구 팬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매스 미디어가 담내는 최고의 콘텐츠가 됐다. 그리고 그 덕에 다시 매스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열광을 이끌어들이게 된 셈이다. 축구는 이렇게 인간학적인 요인부터 경기 내적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모든 것에 걸쳐 우세종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었기에 실제로 문화적 우세종이 됐던 것이다. ■

김종업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연대와 열광> <에밀 뒤르켐을 위하여> <시대유감> 등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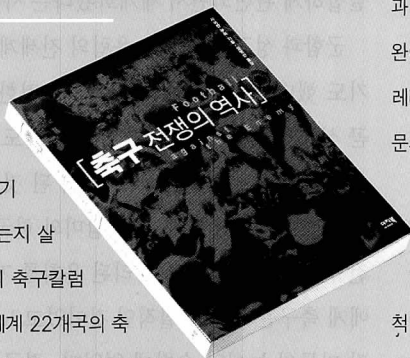
축구와 정치의 관계 파헤친 방대한 보고서

《축구 전쟁의 역사》

사이먼 쿠퍼 지음 | 정병선 옮김
이재북/A5변형/390면/15,000원

이 책은 축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축구칼럼 기고자인 지은이는 9개월 동안 세계 22개국의 축구현장을 현지답사하며 이 책을 썼다. 그리고 클럽 운영자, 정치인, 마피아, 기자, 다른 종목 팬 등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구에 대한 비밀스런 정보들을 공식적인 축구사에 보태 한권의 방대한 다큐멘터리로 구성한다.

이 책의 기본 골격은 축구와 정치의 관계다. 지은이가 밟을 밟는 국가마다



축구와 관련된 해외토픽감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전쟁 전까지 치달았던 서독과 네덜란드의 유럽 국가선수권전, 영국의 노동계급 출신 축구선수 폴 가스코완이 자본주의 소비산업 속에서 소진되는 과정, 위대한 축구 감독 엘레니오 에레라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 개재된 카탈루냐의 민족문제, 아프리카 각국의 월드컵 도전사와 선수들의 재미난 주술 의식, 카메룬 대통령 폴 비야가 축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캐내기 위한 로저 밀러와의 힘겨운 인터뷰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플루토늄을 수출하며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마피아 기업 디나모 키예프를 못본 척 내버려두는 이유가, 이 기업이 최고의 선수를 끌어모아 제국주의적인 모스크바팀들을 격파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선 축구가 각 민족국가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명쾌하고 객관적인 시각, 날렵하고 유머러스한 문장 그리고 축구의 기술적인 문제와 축구인들에 얽힌 풍부한 에피소드로 인해 이 책은 축구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넘어서는 축구의 재미를 안겨준다. — 강성민 기자